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라 1

I. 서론

1. 전도서

본서의 제목인 ‘전도서’는 히브리어로 ‘코헬레트(קהלת)’이며, 이는 ‘(모여든 회중에 게 종교적 진리를 전달하는) 전도자’, ‘성직자’ 또는 ‘()’라는 뜻이다. 본서는 읍기, 시편, 잠언, 아가 등과 함께 시가서로 분류된다.

특징적으로 본서는 인생의 온갖 희로애락을 다 경험한 기자가 인생의 황혼기에 접은 시절을 회고하면서 기록한 것으로 ()만이 진정 복되고 만족스러운 삶을 고백하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다.

1) 기자

전통적인 견해로는 본서의 기자를 ‘()’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본문에 직접적으로 솔로몬이 저자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1:1), “이스라엘의 왕”(1:12),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다”(1:16) 등의 표현들이 솔로몬이 가장 적합한 저자임을 가리키고 있다. 또한 유대 전승과 쿰란 사본의 전도서 단편들이 솔로몬 저작설을 지지하고 있다.

이와는 다르게 많은 주석가들은 언어학적인 자료들의 증거를 통해 본서의 히브리어 원문이 솔로몬 당시보다 후기 연대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솔로몬 저작설에 반박한다. 그러나 명확한 결정적 자료가 부족하여 솔로몬이 본서의 기자가 아님을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견해를 따라 본서의 기자를 솔로몬으로 보는 것이 본문 해석과 이해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2) 기록 연대

전통적인 견해에 따라 본서의 기자를 솔로몬으로 볼 때, 기록 연대는 솔로몬(B.C. 970-931)의 생애 말기인 B.C. 935년경으로 볼 수 있다.

3) 기록 목적

본서의 기록 목적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한다. 기자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①() : 타락한 세상의 현실과 관련하여 의인에게 임하는 고난을 언급하고 있으며, 세상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하여 ()하고 ()로운 삶을 살 것을 권면한다(12:13~14).
- ②인간의 이성과 철학의 한계: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인생은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으며, 인간의 ()함과 지혜의 ()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③신앙인의 올바른 삶의 도리: 한 신앙인의 인생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로 서야하며, 개인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타인을 착취하거나 이기적인 정욕에 몰두하는 것에 경계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4) 주제 및 특징

본서의 가장 기본적인 주제는 이 땅에 궁극적 소망을 둔 인생은 허무와 무의미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 때 비로소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3:14). 이런 의미에서 본서의 특징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 ①땅과 하늘을 구분하는 이분법: 기자는 “해 아래”, “하늘 아래”, “땅 위에”처럼 두 영역을 구분하며 인생의 곤고한 모습에 초점을 맞춘다.
- ②단어 사용법: 구약 성경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들이 등장하지 않는다. 본서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하여 언약적 명칭인 “여호와”에 관한 언급이 없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이나 이스라엘에 관한 언급도 거의 볼 수 없다. 이는 기자가 독자를 제한시키지 않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독자로 두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방인들의 생각, 행동, 가치관을 교정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준비하라고 요구하는 측면에서 () 특징을 가지고 있다.

5) 구조

본서의 내용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어 획일적으로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본서의 기록 목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래의 전개 과정을 볼 수 있다.

- ① **논제: 인생의 허무함(1:1-11)**
- ② **모든 것이 헛되다는 증거(1:12=6:12)**
- ③ **헛된 인생에 대한 조언(7:1-12:14)**
- ④ **결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것(12:9-14)**

II. 본문(전도서 1:1-2:26)

본서의 도입부라 할 수 있는 1장과 2장은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통렬한 체험적 인식과 그에 대한 전도자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전도자의 고백은 결코 절망과 포기로 끝나지 않는다. 전도자는 지금껏 자기가 살아온 길이 하나님 중심주의가 아니라 (), 세속주의적 삶이었으며, 그 최후가 얼마나 ()이었는지를 처절하게 깨닫고 그에 대해 고백함으로써 자신의 전철을 밟는 자가 생기지 않도록 애타게 촉구하고 있다.

1. 만물의 허무에 관한 성찰(1:1-18)

성경의 시가 문학 중 하나이며, 지혜 문학에도 속하는 본서는 인간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으로 초막절 제3일에 낭독되었다. 본장은 본서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에 대한 통렬한 ()과 이 에 대한 기자의 고백이 담겨 있다.

1) 만물의 헛됨(1-3)

(1)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이 표현들은 이스라엘 전통에서 지혜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솔로몬을 암시하고 있다.

(2)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2절)

***‘헛되다’(헛벨): ‘가치가 없다’, ‘헛되다’라는 의미의 동사 ‘하발’에서 유래한 명사이다. 이 명사는 구약성경에서 약 70회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본서에서 사용되고 있다. 사용 용례로는 ①지혜 문학에서 ()하고 ()이며, 가치와 의미가 없는 내용을 담은 말들과 함께 사용되었다. 특히 거짓된 주장과 관련되어 사용되었다(욥27:12). ②욥기에서는 이 단어가 친구들의 연설에 대하여 수사학

적인 경멸의 언어로 사용되었다.

(3)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3절)

- ① ‘해 아래에서’(타하트 하사메쉬): 성경에서 오직 본서에만 있는 표현으로 29회 사용되었다. 이는 인간의 삶의 영역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영역인 땅 아래의 세계와 하늘을 배제하고 있다. 기자는 이 단어를 통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삶의 문제와 한계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수고하는’, ‘수고’(아말): 노동을 통한 ‘고통’이나 이를 경험하는 ‘()’을 뜻한다. 본서에서 30회 이상 사용되며 주로 노동의 수고가 헛됨을 강조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 ③ ‘유익’(이트론): 본서에서만 사용되는 단어로 인간의 수고가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2) 자연현상의 단조로움과 무상함(4-7)

만물의 허무함에 대한 한 예로서 대자연의 허무함을 일차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대자연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며 대조적으로 인간의 ()을 보여준다. 또한, 본 단락의 표현들은 모두 한결같이 자연계의 단조로운 활동을 통해 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연 만물은 나름대로 활동하고 움직이지만 결과적으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 뿐이다.

(1)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음(4)

**인간 세대의 ()과 땅의 영원함: ‘세대(도르)’란 ‘동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 ‘기간’을 뜻한다. 이 단어는 순환 운동을 나타내는 동사 ‘두르’와 연관되며 본절에서는 인생의 덧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땅의 영원함을 나타내는 동사 ‘아마드’는 땅의 존재의 ()을 나타내며 인생의 무상함을 더욱 극적으로 비교하는 대상이다.

- (2) 해는 뜨고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감(5): 해의 운행의 무료함과 무상함
- (3) 바람은 이리 저리 돌아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감(6): 바람의 순환과 지루한 반복
- (4)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나 바다를 채우지 못함(7)

**강물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만 바다 수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함을 나타내며 무상함을 표현하고 있다. 본절의 ‘바다’는 사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며, 요단 강은 북쪽으로부터 사해로 흘러들어 가며 사해의 물이 빠져나갈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위에는 별 다른 변화가 없다.

3) 인생의 무상함(8-11)

(1)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음(8a)

****4-7절에서 말한 자연계의 무상함을 정리하고 있다. ‘피곤함’에 해당하는 원어는 히브리어 ‘야게아’로 힘든 노동으로 인해 ‘지친’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연계의 계속된 반복적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벗어날 수 없는 순환의 구조가 모든 것들을 지치게 만든다는 것이다.**

(2)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함(8b)

****인간이 보고 듣는 것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이 만물(자연계)의 반복처럼 끊임없음을 강조함과 동시에 이러한 추구가 헛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3) 인간 역사의 순환과 해 아래 새 것이 없음(9a)

①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변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같은 일의 반복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②**“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9b):** 인간 세계의 한계와 문제, 곧 인간의 계속된 욕망과 추구에도 결코 새로운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4) 새 것이라 할 것이 없으며, 우리가 있기 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음(10)

****인간들의 발명과 새로운 발견을 통해 얻은 것도 새로운 것이 아니라 단지 ()일 뿐이라는 사실에 주목함으로써 시간의 끝없는 연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5)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11절)

****이전에 많은 것이 존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만든 것들이 새로운 것이며 대단한 성취로 자랑하고 여기지만, 이는 역사 속에서 항상 ()되어 왔고 시간이 지나면 ‘이전 세대’도 ‘장래 세대’도 모두 기억하지 않는 유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4) 지혜를 사용하여 알아낸 것(12-15)

앞 단락에서는 자연계(만물)의 헛됨의 실례를 사용하면서 허무함을 나타냈다면, 본 단락은 ()에 대해 기자 자신에게 빚대어 언급하고 있다.

(1)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12절)

**본절은 서론(1-11절)을 마치고 본론을 시작하는 부분이다. 1인칭인 ‘나’를 사용함으로써 단락의 변화를 주고 있다. 또한 이 표현은 본서가 누구의 저작인지 가늠하게 하기도 한다.

(2) 마음을 다해 지혜를 써서 살핀즉 인생은 괴로운 것임(13절)

**마음을 다했다는 것은 모든 지적, 도덕적, 영적 역량을 집중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인생은 괴로운 것, 보람 없는 ()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3)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보니 모두다 헛것이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임(14절)

(4)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음(15절)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근본적으로 그릇되며 모순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5) 지혜의 허무함(16-18)

전도자는 자신의 탁월한 지혜를 거만하게 과시하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와 물질적인 풍요를 누려본 그가 이 세상에서 행복이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면 다른 사람들을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1)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16절)

(2) 지혜를 알고자 했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음(17절)

(3) “지혜가 많으면 ()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을 더하느니라”(18절)

***전도자는 나름대로 지혜를 추구했으나 지혜 추구의 허망함을 깨달았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성하고 경건한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말한다. 하나님을 떠난 지혜(세속적 지혜)의 무용성을 말하는 것이다.

2. 쾌락과 성공의 허무함(2:1-26)

전도자는 지혜와 어리석음으로부터 즐거움(쾌락)이라는 주제로 시선을 돌린다. 그는 즐거움 속에서 의미를 찾기 위하여 그 가능성을 점검해보았다. 그는 음주와 성적 쾌락, 성공과 부를 통해 즐거움을 얻으려고 했지만 이 모든 노력으로 얻은 순간적인 즐거움은 모두 ()할 따름이었다.

1) 쾌락 추구 시도와 그 결과의 허망함에 대한 토로(1-11)

(1) 스스로 낙을 누리고자 하였으나 이것도 헛됨(1)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 재산의 소유나 감각적인 쾌락에서 오는 기쁨을 말한다.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평안과 은총을 통해 누리게 되는 기쁨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전도자는 앞장에서 자연의 허무함(1:2-11), 지혜의 허무함(1:12-18)을 언급한 후에 본 단락에서 재산의 소유나 감각적, 육신적인 기쁨에서 오는 즐거움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2) 웃음은 미친 것이며 희락은 아무 소용이 없음(2)

***‘웃음’이 피상적인 기쁨을, ‘희락’은 보다 심오한 기쁨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을 떠난 기쁨은 영원할 수 없으며 순간의 ()은 더욱 큰 ()함을 줄 뿐이다.

(3) 지혜와 쾌락 추구의 조화를 시도하였음(3-8)

- ①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였음
- ②사업을 크게 하였음
- ③나를 위한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었음
- ④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각종 과목을 심었음
- ⑤나를 위해 수목을 기르는 산림에 물을 주기 위해 못들을 팠음
- ⑥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했음
- ⑦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음
- ⑧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해 쌓았음
- ⑨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음

***전도자는 즐거움이 삶의 의미나 유익의 원천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가장 감각적인 즐거움을 제공하는 술부터 언급하기 시작한다. 또한, 저택을 짓고 포도원을 경작했다.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노비를 사고 자신의 소유를 많게 하였다. 더 나아가 정복하고 다스리던 주위 여러 이방 족속의 왕들로부터 보배(선물 또는 세금)를 받기도 했다. 노래하는 남녀(축제나 연회 등에서 흥을 돋우기 위해 노래하는 자들)와 기뻐하며 처와 첩들(성적 탐닉)을 많이 두기도 했다. 그가 한 모든 일은 ‘나를 위하여’, 즉 자기 중심적인 지혜와 쾌락 추구였던 것이다. 그러기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고

()함만 가득했을 뿐이다.

(4) 성공과 패락에 대한 칭송(9-10)

- ①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9절)

***전도자는 누구보다 삶을 즐기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엇이 유익한지에 대해 평가하였던 사람이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지혜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서 오는 지혜가 아니라 전도자 나름대로의 (), 세속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 ②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음

- ③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음

***‘눈’은 외적 즐거움, ‘마음’은 내적 즐거움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전도자는 가시적인 패락의 대상이나 내면적 만족감을 주는 것을 막론하고 모든 즐거움을 추구하였다는 것이다.

- ④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

- 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임

(5) 패락의 향유 끝에 엄습하는 허무의 토로(11)

- ① 후에 생각해 보니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고 수고한 것이 헛됨

- ② 바람을 잡는 것이며

- ③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임

***비록 패락이 전도자가 수고한 대가였다고 하더라도 그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었던 ‘() 찾는 일’에는 실패했다. 그의 결론은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며,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었다.

2) 죽음 앞에서의 지혜와 수고의 허무함(12-23)

솔로몬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지혜를 사용한 실례를 보여주고(12-15절) 이어 자신의 지혜를 자궁했던 과거 시절을 언급한 후(16절) 이어서 지혜의 허무함을 피력하고 있다(17, 18절).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 지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귀중하며 복된 것이다. 따라서 전도자가 타락하기 전에 저술했던 것으로 보이는 잠언에서는 지혜에

대해 칭송했으나, 본서에서는 지혜의 허무함을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떠난 ()을 말하는 것이다.

(1) 죽음이 초래하는 지혜와 우매의 상대적 차이와 인간 지혜의 절대 허무(12-17)
전도자는 어리석음과 비교되는 지혜의 상대적 가치를 인정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둘 다 허망함을 강조한다. 죽음은 지혜를 포함한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①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음(12a)
**돌이켰다는 것은 인간적인 즐거움의 추구가 헛된 것임을 결론지으며,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지혜와 어리석음의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다.

②왕의 뒤에 오는 자가 행하는 일도 오래 전에 한 일일뿐임(12b)
**본절을 세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❶솔로몬 뒤를 이어 왕이 되는 자도 솔로몬이 추구했던 바 그 이상을 하지는 못하고 결국 시행착오를 반복하게 될 것임, ❷인생의 낙을 찾아 헤매는 후대의 왕들도 솔로몬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임, ❸“미래의 왕들은 내가 당했던 문제에 직면할 때 어떻게 반응하며 처신할 것인가?”라는 물음.

③일상적 관점에서 우매에 대한 지혜의 상대적 우월성(13-14a)
①()가 우매보다 뛰어난이 ()이 어둠보다 뛰어난 같음
②지혜자는 눈이 그의 머리 속에 있고(밝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님
***전도자가 생각하기에 지혜자는 자신의 길을 밝혀 주는 빛과 같은 지혜를 지닌 반면에 우매자에게는 철저한 어둠뿐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점을 보인다. 하지만 지혜의 유익도 ()이며 일시적일 뿐이다.

④그러나 죽음 앞에서 지혜의 허무함은 우매와 마찬가지로(14b-15)
①지혜자와 우매자가 당하는 일이 같다는 것을 깨달음
②“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15절a)
③지혜의 허무함을 깨달음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 지혜자나 우매자나 한결같이 처하게 되는 ‘ () ’ 앞에서 세상 지혜와 한계의 헛됨을 통감하게 된다. 지혜자는 누구보다 지혜로운 자라고 자처했지만 죽음이라는 공통의 운명을 맞아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지혜나 우매함이

상대적 차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⑤인간의 보편적, 필연적 상실로 인한 인간 지혜의 절대 허무 및 한탄(16-17)

㉠지혜자나 우매나자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며 잊혀지게 될 것임

㉡지혜자의 죽음이나 우매자의 죽음이나 마찬가지임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17절)

***본 단락은 인생이 비극적이며 절망적이라는 시각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전도자는 자신이 우매자와 똑같이 인생의 종말인 ()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서 인생에 대한 ()를 느끼고 반발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2) 해 아래에서의 수고의 허무(18-23)

본 단락은 인생의 ‘수고’라고 하는 새 주제로 전환한다. 지혜에서 궁극적 의미를 찾지 못한 전도자는 이제 애써 노력하는 ‘수고’를 통해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만족을 얻을 수 있을지를 점검해본다.

①누구인지도 모를 후대에게 남기고 떠날 수고에 대한 허무(18-19)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함 > 후대에게 남길 뿐이기 때문

㉡그 사람(후대)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모를 뿐만 아니라

㉢그가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관리할 것이니 이것도 헛된 것임

**후대의 인물이 솔로몬 자신의 업적을 물려받아 잘 관리하지 못하고 결국 물거품처럼 만들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담겨있다. 죽음은 지혜마저도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며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든다. 실제로 솔로몬은 자신의 왕위를 이은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처사 때문에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될 줄 몰랐으며(왕상 12:14,20), 자신의 수고로 모은 보화들을 르호보암 때에 애굽 왕에게 탈취당할 줄도 몰랐다(왕상 14:25-28).

②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남기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실감과 허무함(20-21)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함

㉡어떤 사람은 자신의 수고로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임

**전도자는 한 사람의 예를 드는데, 열심히 일하고 성공을 거둔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 이 사람은 그의 전 재산을 수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남기게 되었다. 이토록 허무하고 헛된 일이 어디 있는가?

③소득 없이 쉬지도 못하며 평생 애쓰는 수고의 허무(22-23)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22절)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뿐임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됨

***18-21절을 지나며 얻은 결론을 본 단락에서 재차 강조하며 해 아래서 행하는 사람의 모든 수고가 무슨 이득이나 유익을 가져다주겠냐는 질문을 한다. 전도자가 생각하기에 그런 노고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수고하는 자들은 일평생 육체적, 정신적 노고로 가득하며, 심지어 밤에도 자신의 일에 골몰하여 편히 잠을 청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한다.

3) 해 아래 인생에서 최선의 길인 하나님 안에서의 삶(24-25)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던 전도자가 갑자기 인생에 대한 ()에 대해 이야기한다. 전도자는 세상의 기쁨도 ()에서 나오게 됨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삶의 작아 보이는 즐거움도 누릴 수 없다.

(1)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음(24a)

(2)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서 나오는 것임(24b)

(3)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 보았으랴”(25절)

**솔로몬이 자신의 쾌락과 경험을 자랑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벗어나서 먹고 즐기는 일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고백이다. 인생의 즐거움과 슬픔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4)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의인의 희락과 죄인의 노고(26)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와 ‘죄인’이라고 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대해 말한다. 이는 영적, 도덕적 측면에서 분류한 것이다. 의인이 그 삶에 합당한 보응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해 아래의 모순된 현실 속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고 ()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결국 행

복한 최선의 삶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경건한 자세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 (1)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와 지식과 ()을 주심
- (2)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은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주심
- (3)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임

***이상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❶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즐겁게 살아야 한다, ❷우리가 건강, 부, 지위, 감각적 쾌락, 명예 등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한 결코 만족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